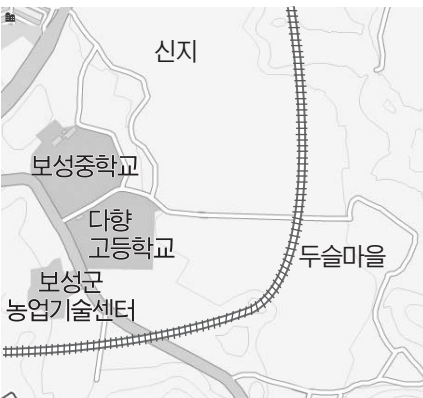


토성 쌓아 철로 건설...村老 수십명 식발·단식

경전선 보성 두슬마을 앞 길이 400m·높이 13m 흙벽위에 공사 조망권·일조권 침해에 수백년 유서깊은 마을 고립·사라질 위기 “교량 선로로 해달라” 호소 ... 철도공사·지자체는 책임 떠넘겨

300년 넘는 전통을 지닌 보성의 한 마을이 철길공사 때문에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보성-목포 임성리 간 경전선 철길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성군 옥평리 ‘두슬마을’ 입구에 토공선로(흙으로 된 독 위에 설치하는 철로)를 설치하기 위해 길이 400m, 높이 11~13m의 대형 흙 토성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65가구에 총 130여 명의 주민이 옹기 증기 모여 살고 있는 ‘두슬마을’ 주민들은 “흙토성 위로 철길이 완공되면 바람길에 막히고, 조망권과 일조권이 사라지는 등 마을이 사실상 고립돼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토공 선로 구간을 교량 선로로 건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철길공사를 진행중인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보성군은 “자치 단체의 업무가 아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6일 오전 보성군 옥평리의 들판 곳곳에는 ‘이게 마을이냐’, ‘저수지 제방이지’ 등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33도가 넘는 폭염에도 마을 어르신들 수십명이 마을 입구와 철도 공사 구간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한 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이모(84)씨는 “전체 철길 가운데 마을 앞을 지나가는 400m만이라도 교량으로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을 항의방문하고, 진정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단 한차례도 공사현장을 찾아오거나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성~목포간 경전선 계획도



앞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슬마을 박옥근(67) 이장은 “철도 공사를 위해 쌓은 흙더미가 마치 토성과 같다. 이 흙더미가 마을 앞을 가로막아 조망권·일조권·통풍권을 한꺼번에 침해당하게 됐다”면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이 토공선로가 완성이 되면 이 마을 주민의 90%가 이주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주

민은 “토공선로가 논으로 불어오는 바람 길을 막아 그만큼 농작물 성장도 저체되고, 비가 오면 흙이 유실돼 논으로 흘러 들어오는 등 농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마을 앞 철길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철도시설공단이 보성군과 협의를 거졌다는 점에서, 보성군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관계자는 “철길 공사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중재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철도시설공단은 내년 말까지 독을 쌓아 철길을 내는 ‘토공 선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철길을 놓게 됐다”며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공사비가 50억 원이 추가로 더 들게 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성=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6일 보성 옥평리 두슬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이 마을 앞 철길공사를 반대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법 증축 광주클럽 붕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국과수 현장감식 “2번 안전사고 불구 보강 안해”

광주 ‘코요테 어글리’ 클럽 내 붕괴된 불법 구조물은 증축된 순간부터 무너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결과, 증축된 구조물은 부실 시공으로 인해 어차피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

다. 지난 2015년 7월,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증축된 총 77㎡의 복층 불법 구조물은 부실한 용접 상태였지만 안전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클럽 측은 또 1층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으로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과 사고 이전에도 불법 증축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2건 발생했지만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다. 클럽측은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안전요원 6명의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기준(100㎡당 1명)을 충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명단에 있는 직원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구조물의 정확한 한계하중을 파악하는 한편 일건된 11명에 대해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순천시 20대 음주운전 사고 50대 등 3명 사망

6일 자정께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울촌산단 방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중 이던 A(27)씨의 SM6 승용차와 이 도로에 진입하려던 B(51)씨의 K9 승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 등 K9 차량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으며, A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B씨 등 사망자 3명은 지인 사이로 경남 거제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27)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였다. 여수에 거주하는 A씨는 순천 시내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령운전자 승용차 어린이집 풀장 돌진 5명 다쳐

전주의 한 아파트 내에 마련된 간이 풀장에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어린이집 원생들이 다쳤다. 6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어린이집이 임의로 설치한 공기주입식 간이 풀장으로 수영장으로 A(82)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했다. 당시 간이 풀장에는 인근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교사 등 10여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3)군과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간이 수영장 쪽으로 돌진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A씨는 “방향을 바꾸던 중에 갑자기 차량이 튀어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연합뉴스

권익위 ‘비아이 마약 의혹’ 신고자 노출 기자 고발

신고자 집 초인종 누른 장면 보도 방송 노출 언론사도 함께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함께 YG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가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제보자가 2016년 4월께 비아이와 대마를 흡입한 뒤 경찰 조사에

서 이 사실과 날짜, 시간, 마약 구매 방법 등을 모두 진술했으나 이후 YG 양현석 대표의 압력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은 신고자의 실명 등을 무분별하게 방송·보도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실명 공개 관련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신고자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한 기자 및 소속 언론사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술 취해 불링장 입간판 부순 텔런트 이재룡 기소유예

○검찰이 술에 취해 불링장 입간판을 부순 텔런트 이재룡(55)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선처.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 김운섭)는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불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재물 손괴 혐의)한 이씨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것. ○기소유예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으로,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인 불링장 주인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전원주택전경

창밖 풍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흰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다스코지주

세라코지주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발전 A to Z, 모든 단계, 설계부터 EPC, O&M까지
당사문의: 010-91 025440-7542, ykang@daesco.kr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소유권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해왔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업체
-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경험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R&D	
세 라 코	수질관리	설계영업	나 주
	세라믹 (정보/마케팅)	영업 R&D	

☞ 접수문의: 담당자 08190-2937, mcm@daesco.kr, 접수기간: ~ 제8차까지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